

경찰과 교정공무원의 산업보건



순서	원고제목	필자	게재예상시기
총괄	공무원의 산업보건 : 위험과 실태	김인아 교수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교실)	5월호
1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장태원 교수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교실)	6월호
2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장태원 교수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교실)	7월호
3	경찰과 교정공무원의 산업보건	김인아 교수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교실)	8월호

* 『산업보건』에서는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방향 및 연구를 소개합니다.



경찰공무원과 교정공무원들은 법 집행자(law enforcement)라고 한다. 국가가 정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업군이다. 외국에서는 이 법 집행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산업보건 전략이나 자살 예방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언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법 집행자들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법령이 공법(Public law)에 존재한다. 반면 한국에서 법 집행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여전히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한국에서 법 집행 공무원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산업보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고, 유사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의 상황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김인아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

경찰공무원,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노출, 우울증 등 다양한 직업적 위험에 노출돼 있어

경찰은 영화나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직업군 중 하나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형사와 수사 담당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3만 명에 이르는 전체 경찰공무원 중 형사는 소수에 불과하며 절반에 가까운 5만 명의 경찰공무원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이다. 경찰의 직무는 크게 지역경찰, 수사형사, 교통, 정보 및 경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업무는 생활안전과 치안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국 경찰공무원은 치안 이외에도 생

화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미국 등 외국 경찰과는 다른 업무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노회경 작가의 <라이브>라는 드라마를 통해 지역경찰을 비롯한 경찰의 다양한 직군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진 바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경찰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적다. 지역경찰은 4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112 신고에 따른 출동, 순찰, 각종 민원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지역경찰은 이러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노출 등 다양한 직업적 위험에 노출된다.

지역경찰은 야간근무 중 수시로 순찰을 하게 되고, 주취자 처리 등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야간노동 시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수사형사는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장시간노동 수사 및 검거 과정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고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교통경찰도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와 대기오염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교대근무는 ‘주-야-비-휴’, ‘야-야-비-휴’, ‘주-주-주-야-비-야-비-야-비’, ‘당-비-휴’의 근무형태가 혼한데, 각 근무형태의 1주 실제 업무시간은 42~56시간 정도이다.¹⁻²⁾

이러한 직업적 위험요인의 노출로 인해 경찰관은 범인 수사 및 검거 과정에서의 손상뿐만이 아니라 자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 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ogstad 등이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연구에 의하면, 경찰관은 생명에 대한 위협과 상해, 폭력, 죽음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유병률은 약 10% 정도로 보고되었다.³⁾ 우리나라 일반인구 집단의 PTSD 유병률은 1.2% 정도이며, 이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인구집단의 PTSD 유병률은 1~6% 정도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⁴⁾ 또한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1.8배 이상 높았다.⁵⁾

수형자의 생활을 관리, 감독하는 교정공무원, 정신적 긴장이 매우 높은 상태로 업무 처리 나서

교정공무원은 대부분이 접해보지 못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본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교정공무원 1만 6,000여

경찰관은 범인 수사 및 검거 과정에서의 손상뿐만이 아니라 자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 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한국노동연구원. 경찰공무원의 근로시간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2012.

2) 김인아 등. 경찰관 건강질병 연구. 2013.

3) M. Skogstad, M. Skorstad, A. Li, H. S. Conradi, T. Heir and L. Weisæth. Work-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ccupational Medicine 2013;63:175-182.

4) Song C.J. Mechanism and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ongguk Journal of Med 2004;11(1):102-12.

5) Han M, Park S, Park JH, Hwang S, Kim I. Do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ers have a higher risk of disease than other public officers? A 13-year nationwide cohort study in South Korea. BMJ Open 2018;8:e019987. doi:10.1136/bmjopen-2017-019987

명 중 약 1만 5,000명을 차지하는 교정공무원은 수형자의 생활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시단속만을 하는 비교적 손쉬운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감시설의 환경에 따라 관리감독의 업무도 천양지차이며 수형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업무들이 포함된다.

드라마에서 보는 현대화된 감시 장비가 없는 감시시설의 경우에는 냉방이나 난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상층과 하층을 오가며 순찰을 돌아야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수감자가 머무는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휴대폰 소지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정공무원 역시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신적 긴장이 매우 높은 상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정공무원은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변형된 형태의 4교대제를 하고 있다. 일근-야근-비번-윤번이 혼한 형태인데 이는 야간 노동시간이 매우 긴 형태의 근무형태다. 일근은 주간 근무를 의미하며 야간 근무는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된다. 4일차는 윤번 근무로서 근무조와 비번조로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교정직의 근무형태는 교정 시설의 인력,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정직의 경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상황대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때 번갈아가며 수면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상황에 따라 취침공간이 미비하기 때문에 상황 대기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교정공무원은 자살기도, 폭행 사건 등의 수감자 돌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교정공무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업무는 수감자 응대 또는 상담이라고 한다. 특히 수형자들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대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교정공무원 역시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신적 긴장이 매우
높은 상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공무원과 교정공무원의 산업보건체계 미흡 관심과 지원 필요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과 교정공무원의 산업보건체계는 미흡하다. 경찰관의 경우 복지기본법으로 경찰관들에 대한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근로자건강진단 이외에 야간작업 등 업무형태를 고려한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체계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야간노동을 고려한 특수건강진단을 전체 경찰관으로 시행하게 된 것은 2020년부터이다. 일반건강진단 이외에 특별한 건강진단이 없던



상황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특수 건강진단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2020년이 되어서야 전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보건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 본청에는 경찰관들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으며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한 직원이 다른 복지업무와 함께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살예방과 정신건강관리를 하는 한 명이 있어 이 두 명은 14만 명 경찰관의 모든 안전보건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들의 진료와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병원도 직업환경의학과를 비롯한 산업보건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관의 건강검진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산업보건관리가 가능한 인력과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정공무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한 건강진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제 업무 내용과 방법, 환경에 대한 산업보건 측면에서의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경찰공무원과 교정공무원은 산업보건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주요한 직군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공부문의 사업이 다양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에 가까운 공무원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경찰공무원과 교정공무원은 가장 대표적인 법 집행자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다. 이들을 위한 산업보건 체계 마련과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

경찰공무원과
교정공무원은
산업보건의 사각
지대로 남아 있는
주요한 직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산업보건
체계 마련과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